

품격있고 건강한 숲 조성 '최선'

장수군, 외룡자연휴양림서 숲가꾸기 행사 가져... 나무손질 작업·안전교육 등 실시

장수군은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17일 외룡자연휴양림에서 숲가꾸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녹화된 산림을 보다 품격있고 가치있는 녹색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청 산림과 직원과 산림조합 작업단 및 관계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 패트롤 팀 등 40여 명은 느티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주목 등 500본에 비료를 주고 1.0ha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덩굴류 제거 등 나무손질 작업을 실시하고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인 1조로 실시한 이날 작업은 한 명이 곡괭이 이용해 나무 주변 땅을 파면 다른 한 명은 복합비료를 땅에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3시간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나무에 비료를 줬다.

이날 행사에 사용된 고품질 비료는 모두 200kg으로, 비료가 물에 녹으면 땅



장수군은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17일 외룡자연휴양림에서 숲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속으로 스며들어 나무가 뿌리의 활착을 돕고 새 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작용을 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 내 오물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과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계도활동도 전개했다.

이성재 산림과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군민들에게 건강한 숲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숲을 가꾸고 조성하겠다"며 "군

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올해 숲가꾸기 사업으로 총 36억여원을 투입해 숲이베기, 천연립보육,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및 조림지가꾸기를 전개하는 등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기름보일러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해야"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생활안전에 취약지점이 있다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은영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무주군 취약계층 안전점검 강화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의 많은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등유·연탄 등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가 가스보일러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의원은 지난 10월 무풍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무주군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름보일러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화재와 가스중독 사고의 원인이 되는 전기, 가스, 보일러 등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의원은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간지역 연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각 면에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유증전환을 유도하고 추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금이 무주군 위기... 머리 맞대고 미래 준비해야"

무주군의회 황인동 의원

무주군의회 황인동 의원이 지방소멸 예상 지역에 포함된 무주군의 최고위기는 바로 지금이라며 암울한 미래를 바꾸는 준비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무주군의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무주군민들께 묻습니다'라는 5분 발언을 통해 앞으로 예정되는 무주군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황인동 의원은 "정부에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자연인구 감소가 시

작될 거라는 예측이 10년이나 앞당겨졌고 현재 그 속도가 정부 예측의 두 배를 넘었다. 무주군도 2018년부터는 인구 감소가 연평균 260명을 넘어 급격해지고 있다"며 "독거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무주군은 10년 후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눈에 보인다"고 우려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수와 공무원, 무주군의회 의원들이 고민한 만큼 무주는 달라질 수 있다. 군민들이 무주군의원을 비롯해 무주군수와 공무원에게 머리를 맞대고 무주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정치인들 행사장 다닐 시간에 무주의 미래를 고민하라고 해 달라. 무주군의 미래를 위해 군민의 체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무주군의 암울한 전망을 희망으로 바뀌어나기 위해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세진 K-water 용담댐지사장, 진안명예군민 됐다

용담댐 가치 높은 공로 군민증 수여

진안군은 김세진 K-water 용담댐지사장을 진안명예군민으로 선정하고, 17일 명예군민증 수여식을 가졌다.

군에 따르면 군청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용담댐의 가치를 높이고 대내외에 긍정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로를 인정해 역대 6번째 명예군민으로 김세진 K-water(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장을 선정했다.

김세진 지사장은 용담댐 건설 당시 현장 공사감독(2년)을 역임하고, 본사에서 용담댐 총괄사업관리업무(5년)를 담당했으며, 올해 지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용담댐을 다시 찾았다.

김세진 지사장은 부임 후, 진안군 및 지역주민들의 발전을 목표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혁신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을 이끌어 추진하여 왔고, 이를 통해 진안군 및 댐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찬사를 받아왔다.

우선 용담댐의 가치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용담댐을 알리기 위해 용담댐 지명유래가 포함된 스토리텔링 액자를 제작하여 지역에 배포하는가 하면, 수물민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댐건설 전의 수물지 지형을 완전히 3차원 고화질 칼라 영상으로 생생하게 복원해



댐으로 사라진 수물지 68개 마을을 되찾아 주는 프로젝트를 국내 최초로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그리고 댐주변 마을 발전을 위해 국내 최초의 '용담댐 탄소제로 생태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댐주변환경에 다양한 환경조각작품과 도지벽화거리 등을 설치하여 댐주변을 '지붕없는 미술관'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한마음 동행축제', '용담댐 담수 20주년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댐주변지역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타 댐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단 1년

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댐과 지역이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김세진 지사장은 "개인적 영광보다는 K-water 및 용담댐지사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해 주시길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용담댐이 지역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행정과 마찬가지로 주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용담댐이 지역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진안군을 만드는 데 공헌했다"며 "우리 군과 맺은 연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진안군의회-K-water 용담댐지사, 협약 체결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1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진안군의회, K-water 용담댐지사와 함께 '용담댐 및 댐 주변 지역 가치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민규 진안군의회의장, 김세진 K-water 용담댐지사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담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진안군과 진안군의회, K-water 용담댐지사는 △용담댐과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용담댐과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활용 사업의 발굴 및 추진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과 수물민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용담댐 및 주변지역의 가치를 더 높여 나가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황인홍 군수, 무주고서 수험생들 격려

황인홍 군수가 수능당일인 17일, 대학수능시험을 치르는 무주지역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주지역 수험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무주고등학교 정문 앞에 이른 아침 도착한 황인홍 군수는 교정을 지나는 수험생들을 향해 "긴장하면 실수한다. 차분하게 시험을 치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며 "힘내시고 시험마칠 때까지 응원하겠다"고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을 향해 파이팅을 외치면서 다독였다.

한편, 무주군 지역 내 이번 수능 응시자는 모두 16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디지털 인재 양성 위한 관·학 업무협약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17일 전북대학교 빅데이터 혁신공유사업단(단장 안정용)과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경)간의 빅데이터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데이터 중심의 학생 맞춤형 공유플랫폼 구축 및 제공을 통해 디지털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진안군 초등학교들이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전북대학교 캠프에 참가하여 데이터 활용능력 및 자료분석능력 등 맞춤형 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받는다.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중립계획의 실행 프로젝트로 국가 수준의 빅데이터 분야를 추구하며 디지털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빅데이터 관련 실무중심의 강의와 현장실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역인재양성에 주력하기 위해 추진된 만큼 관내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 배움의 길이 커질 것 기대한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진안군 미래를 이룰 재원들의 희망의 등대가 밝혀지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